

무궁테라스 2020 년 2 월 뉴스

올해 2020 년은 양력으로는 2 월 29 일 윤일이 있고, 음력으로는 윤 4 월 윤달이 있습니다.

이런 윤일, 윤달은 왜 필요할까요?

양력은 음력에 비해서 대체로 간단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1 년 길이가 대략 365.2422 일이기 때문에 1 년을 365 일로 하면, 대략 4 년에 한 번씩 하루를 집어넣어야 맞습니다. 그 하루가 2 월 29 일 윤일입니다.



반면 윤달은 음력에서 계산되어 집니다. 음력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초승달·상현달·보름달·하현달·그믐달로 변하는 주기, 즉 약 29.5305 일을 한 달로 봅니다. 달을 기준으로 하는 음력에서는 한 달을 29 일/30 일을 번갈아 사용하는데, 1 년 12 달로 계산하면 1 년이 354 일이 되어서, 매년 양력과 약 11 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오차를 줄이려고 또 계절과도 맞추기 위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윤달을 두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윤달을 두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고안되었는데 그 중 19 년에 7 개월의 윤달을 두는 방법을 19 년 7 윤법 (十九年七閏法)이라 하여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만일 윤달을 두지 않고 19 년이 흘러간다면 계절과 날짜가 맞지가 않아서 음력 5,6 월에 눈이 오게 될 수도 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우리 속담이 실제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규칙으로 윤달을 넣을까요? 윤달을 넣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다만 순서가 일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역법을 해석, 계산하여 윤달을 결정합니다. 윤달을 정할 때, 동지가 들어가는 음력 11 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음력 11 월달에는 윤달이 거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동짓달 초하루'라는 말이 있는데, 곧 윤동짓달은 없는 달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윤동짓달 초하룻날 하겠다' 라고 하거나, 돈을 빌려 쓰고 '윤동짓달 초하룻날에 갚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갚지 않겠다는 뜻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는 2033년에는 오랫동안(383년 만에) 윤동짓달이 옵니다. '윤동짓달에 하겠다'고 미루어 놓은 일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새해 달력을 받아 들었을 때 양력 1 월에 설날(음력 1 월 1 일)이 들면 그 해에는 윤달이 있습니다. 대략 양력 1 월 21 일에서 2 월 2 일 사이에 음력 설날이 오면 그 해에는 윤달이 듭니다. 올해는 설날이 양력 1 월 25 일에 있어서, 윤 4 월이 들어 있습니다.

2 월에 생신 맞으시는 분

최희정-304 호 (7 일), 함순남-405 호(7 일), 서월리암-214 호 (8 일),
윤문순-203 호(8 일), 박초자-404 호(9 일), 김수정-205 호(15 일),
박남걸-404 호 (21 일), 김영숙-210 호(24 일)

생신 축하 드립니다

정월 대보름 윷놀이 잔치

무궁 친목회 주최 윷놀이 잔치가 2020 년 **2 월 20 일 목요일 5** 시에 열립니다. 정월 대보름 오곡밥 & 나물들을 드시면서 우리 고유의 풍습을 마음껏 즐겨보세요.

치매환자 돌보기 워크샵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치매에 걸리신 분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조그만 도움이라도 아주 많이 힘이 되곤 하지요. 우리가 아직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여리고 약한 사람들을 감쌀 수 있는 도우미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센터의 차예람/남준경 선생님이 와서 6 번의 모임을 가지며 설명해 드립니다. 2 월 6 일 목요일 3 시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과 함께 2 월 11 일부터 3 월 17 일까지 매주 화요일 10 시에 여섯번의 모임을 갖습니다.

무궁의 새가족분들 환영합니다.



- ♣ 김선웅 발 전문의 정기진료 : 2월 24일 월요일 오전 8시반
- ♣ 2월 17일 월요일은 Presidents' Day 공휴일입니다.
- ♣ 서비스 코디네이터 배경진 : 2월 17일, 18일 휴가입니다.

동가식, 서가숙(東家食, 西家宿)

옛날 어느 집에 무남독녀(無男獨女)가 있었습니다. 귀엽게 고이고이 잘 키워서 이제는 시집갈 혼기가 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중매쟁이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동쪽에 좋은 신랑감이 있는데, 집안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먹고사는 것은 전혀 걱정 없으며 하인들도 많아 색시는 손에 물도 묻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흠이라면 신랑감이 좀 모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른 중매쟁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쪽에 좋은 신랑감이 있는데, 그 총각은 인물도 훤칠하게 잘 생겼고, 배운 것이 많아 아는 것도 많으며, 과거시험도 준비 중이라 장래가 촉망되는 신랑감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집안이 가난하다는 점입니다. 그 점만 빼면 요즘 보기 드문 훌륭한 신랑감입니다.’ 처녀의 아버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불러 본인에게 의사를 직접 물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얘야! 너는 동쪽 사람이 맘에 드느냐, 서쪽 사람이 마음에 드느냐?’ 딸은 얼른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말하기가 거북하면 행동으로 표시해도 된다. 동쪽 사람이면 오른손을, 서쪽 사람이면 왼손을 들어보아라. 그랬더니 딸은 기다렸다는 듯이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아버지는 딸에게 ‘얘야! 이게 어찌된 일이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의 대답은 ‘아버지! 동쪽 신랑감은 사람이 좀 모자라지만 재물이 많은 부자이니까, 밥은 동쪽 집에서 먹고, 서쪽 신랑감은 가난하지만 사람이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니 잠은 서쪽 집에서 자겠습니다.’ 즉 두 가지 실리(實利)를 모두 얻겠다는 얘기입니다. 두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利益)만을 골라서 취하는 것을 뜻하는 ‘동가 식, 서가 숙 하겠다.’는 고사성어(故事成語)가 여기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 한 고사(古事)로 고려(高麗)가 망하고 조선(朝鮮)이 세워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개국공신(開國功臣)들을 불러 연회(宴會)를 베풀었는데, 이 때 어느 대신이 기생 ‘설중매’ (雪中梅)에게 그를 희롱하는 말로 빈정거리며, ‘너는 낮에는 동쪽 집에서 먹고, 밤에는 서쪽 집에서 자는 기생이니, 오늘 밤은 나와 보내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기생도 이에 지지 않고 ‘아무렴요. 어제는 고려를 섬기고, 오늘은 조선을 섬기는 대감이니 저와 밤을 보내시기에 꼭 알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대동기문> (大東奇聞) 책에 실려있는 고사입니다.



우리 건물의 부엌 하수관이 잘 막히곤 하는 범인을 찾았어요. 바로 철수세미였어요. 냄비나 솥의 잘 안 벗겨지는 것들도 쉽게 닦을 수 있는 편리한 점은 있지만, 문선생님이 수리를 하다보면 이 철수세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아주(너무) 많아요. 이 수세미의 사용을 중단해 주시기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초록색 수세미를 추천합니다.)

